

한국문화교류 소식

28호 2018년 6월 15일 발행·발행인 조남철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International Center for Korean Culture(ICKC)

04173 서울시 마포구 삼계로 20 근신빌딩 별관 201호 사무실 03173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3길 30, 711호(내수동, 세종로대우빌딩 복합동)
전화 02-2285-1070 팩스 02-2285-5070 메일 hangyobon@gmail.com 홈페이지 www.ickc-seoul.net

[특집 : 현장의 눈]

한국 문화유산의 가치와 그 미래에 대한 논의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총회 및 창립 7주년 기념 포럼 개최

ICKC는 지난 3월 30일(금),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정기 총회와 더불어 “한국 문화유산의 가치와 그 미래”라는 제목으로 창립 7주년 기념 포럼을 개최하였다. 참석 못 한 회원들께도 본 포럼의 취지 및 요지를 전하기 위해, 당시 강연 내용과 현장 분위기를 세심하게 보도한 『재외동포신문』의 기사를 전재(转载)한다. 게재를 허락한 재외동포신문 이형모 대표께 지면을 빌려 감사를 표한다. _ ICKC 사무국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이사장 조남철, 이하 ICKC)는 지난 3월 30일 오후 2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한국 문화유산의 가치와 그 미래’를 주제로 정기 총회 및 창립 7주년 기념 포럼을 열었다.

(재)아시아발전재단(ADF, 이사장 김준일)이 후원한 본 행사에는 강석재 세계태권도연맹 전문위원, 김정복 전 국가보훈처장, 박갑수 서울대 명예교수, 박원출 전 한국조폐공사 사장, 박의근 (주)P&H 회장, 전영섭 변호사, 최 광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60여 명의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1부 총회와 2부 기념 포럼으로 나눠 진행되었으며, 최영욱 ICKC 사무국장이 1부 사회를 맡았다.



개회사 및 환영사를 대독 중인 이형모 재외동포신문사 대표

1부 총회에서는 재외동포신문사 대표이자 ICKC 이사인 이형모 대표가 해외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한 조남철 ICKC 이사장 및 세계태권도연맹(World Taekwondo, WT)과 ICKC의 총재를 겸하고 있는 조정원 총재의 개회사와 환영사를 대독했다. 이어서 2017년 ICKC 주요사업 및 회계결산, 2018년 사업계획과 관련한 보고가 있었다.



‘2018년 ICKC 재외동포학생 장학생’으로 선정된 김 알료나 학생(右)과 시상자 박의근 ICKC 재정위원장

이어서 특별 순서로 ‘2018년 ICKC 재외동포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이 열렸다. ICKC는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본 장학 사업이 국내 유학 중인 우수한 재외 동포 학생의 학업 수행을 지원함으로써 한국 문화의 국제적 교류를 위한 차세대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각계의 추천과 엄정한 심사를 통해, 2회째를 맞은 올해의 수상자로 김 알료나(국적 : 러시아,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부 재학) 학생이 선정됐다.

고려인 4세인 김 알로나 학생은 유창한 한국어로 ICKC의 지원에 감사를 표하며 이를 발판 삼아 한국에서 학업을 잘 마쳐 러시아와 한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PD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학생으로 선정된 김 알로나 학생의 수상 소감 발표

박의근 ICKC 재정위원장이 상장과 소정의 장학금을 전달하는 것으로 시상식을 마쳤다. 다음으로 2017년 세계태권도연맹(WT) 주요 사업 보고가 있었다.

보고를 맡은 강석재 세계태권도연맹 전문위원은 국제 난민 및 재난지역 어린이, 여성 등 사회적 약자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는 태권도박애재단(THF)의 인도적 활동, 남북한 사이의 교류 및 긴장 완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태권도 교류 활동 등을 중심으로 세계태권도연맹의 주요 사업을 설명했고, 태권도박애재단과 ICKC 사이의 업무협약 등 앞으로도 ICKC와 연맹이 보다 긴밀한 협력을 통해 뜻깊은 활동을 이어가자는 조정원 총재의 말을 대신 전하며 보고를 마쳤다.



세계태권도연맹(WT) 사업 보고, 우측 화면은 지난 2017년 5월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 총재가 로마 바티칸 성 베드로 성당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태권도 명예10단증'을 수여하는 모습

2부 포럼에서는 ‘한국 문화유산의 가치와 그 미래’라는 주제로 고운기 한양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국문학 박사, 시인)의 강연이 있었다. 고운기 교수는 ‘공존: 한국 문화유산이 지닌 가치’는 제목의 발표에서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으로 우선 한글을 언급 하면서 강연을 시작했다.



‘한국 문화유산의 가치와 그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하는 고운기 한양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고운기 교수는 세종이 창제한 한글이 우리나라의 지적·정신적 문화의 큰 줄기 역할을 해왔고 최근에는 간판이나 대중문화 등 일상적으로도 널리 사랑 받고 있다는 점을 들어 한글의 유구한 생명력을 높이 샀다.

또한 한글의 초성·중성·종성 3분법이 바로 영어나 중국어, 일본어 등 여타의 다른 언어와 달리 거의 모든 언어를 철자로 표현할 수 있는 한글만의 독특한 면모이자 위대함이라고 강조했다. 고운기 교수는 이어서 최근 영화 ‘신과 함께’의 기록적인 흥행에서 드러나듯, 우리 고유의 무속(巫俗) 문화에 대한 재평가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근대화와 그에 따른 눈부신 경제 성장 역시 세계에 내놓을 만한 우리의 자랑스러운 성취이지만 그 과정에서 무속 문화를 비롯한 우리 고유의 전통적인 문화의 가치가 홀대받은 면이 있다고 고 교수는 진단하며, 한국인의 마음의 밑바닥(心底)에 흐르는 본질적인 세계관, 자연관, 공동체적 감정과 기억 등을 되살릴 필요가 있다고 고 교수는 언급했다.



강연을 경청 중인 참석자들

무속 문화나 우리 고유의 자연관 등이 바로 이러한 한국인의 마음에 흐르는 정서를 드러내는 대표적인 문화유산 중 하나이며, 이를 단순한 ‘미신’으로 치부하기보다는 근대적인 성취와 전통문화 유산의 가치, 그리고 종교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믿음, 신앙이 서로 공존하는 길을 모색함으로써 이러한 우리 전통문화유산의 가치를 보존하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갈 것을 촉구하며 고운기 교수는 강연을 마쳤다.

고운기 교수의 강연이 끝난 후에는 김태진 ICKC 연구위원의 사회로 참석자들의 의견 개진과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고 교수의 논지에 공감을 표하며,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이를 다음 세대로 온전히 전하기 위한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시점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



단체 기념사진 촬영

별처럼 빛나는 꿈들



오 정 선 미

미국 벅스카운티 한국학교 교장

벅스카운티 한국학교는 1983년, 미국 필라델피아 지역에 있는 한민족 학생들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설립되었다. 학생들은 주중에는 미국 학교에 다니고 매주 토요일은 한국학교에서 한국어와 한국 역사문화를 배우고 있다. 특별히 우리학교는 오랜 기간 한국의 역사 문화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는 가운데 재외동포재단 한글학교 맞춤형 지원 최우수 학교로 선정되었으며, 매년 한국 역사를 즐겁게 체험하고 있다. 이렇듯 우리학교 학생들은 비록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고 한민족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며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보다 큰 꿈을 가지고 두 개의 언어와 두 개의 문화를 잘 수용하는 세계 시민들로 잘 자

라고 있다. 그래서 나는 비록 토요일 반나절의 짧은 만남이지만 그들의 눈동자에 숨어 있는 무한한 가능성과 다양한 꿈들을 접하곤 한다. 그리고 그때그때 일어났던 일을 일기처럼 글로 적어두곤 했는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아이들과의 이야기 두 개를 옮겨 본다.

0월 00일

첫 학기가 시작된 오늘은 날씨가 참 화창했다. 오랜 방학을 마치고 다시 만난 학생들의 얼굴이 날씨보다 더 싱그러워 보였다. 9명의 학생이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마치고 난 다음 학생들에게 왜 한국학교를 오게 되었는지 물었다. 실은 '부모님과 한국말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한국학교에 오면 한국 친구가 있어서요.'와 같은 뻔한 대답이 나오려니 생각하면서 한 질문이었다.

그런데 한 학생이 "예쁜 한국 색시랑 결혼해서 살려면 한국말을 잘해야 한다"고 대답하였다. 그 능청스러움과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학생이 '색시'란 말을 쓰는 것이 신기하기도 해서 한참을 웃었다. 그 외 한국학교에 가라고 등 떠밀지 않아도 토요일이면 한국학교에서 만날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또는 돌아올 여름 방학에 한국에 가서 친척들과 지낼 때 더욱 능숙해진 한국어 실력을 보여



‘박스 골든벨’ 마친 후 세종대왕 어진(御眞) 앞에서 단체 사진 촬영

주기 위해 열심히 배우고 싶다는 학생의 말을 들을 때는 내 마음 한편이 뭉클해졌다. 이렇듯 스스로 배우겠다는 학습 동기를 지닌 학생들이라면 같은 시간을 투자해도 더 많이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학기는 한국어와 한국에 대해 가르쳐 보겠다는 나의 의지와 한국어를 배우겠다는 학생들의 의지가 서로 팽팽한 학기인 만큼 더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그래야 민제의 말처럼 아들만 둘인 나도 참한 한국인 며느리를 맞아서 추석이면 함께 송편도 빚고 설날엔 같이 윷놀이도 할 수 있지 않을까?

0월 0일

오늘은 ‘나의 장래 희망’이라는 주제로 글짓기를 했다. 인생에 있어서 확실한 목표가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나 스스로 경험하고 있기 때문인지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자주 만들어 주자는 것이 이번 학기 나의 교육 목표 중의 하나였기 때문이다.

열심히 글을 쓰는 학생을 보면서 내가 저 또래 나이였을 때는 무엇이 되고 싶어 했던가를 생각해 보았다. 국어 선생님을 좋아했던 시절에는 국문학자가 되겠다는 꿈을 키운 적도 있고 나이팅게일에 대한 책을 읽은 후에는 간호사가 되어 많은 사람

들을 돕겠다고 생각을 한 적도 있었다. 밤을 새워 그림을 그렸던 사춘기 시절엔 화가가 되는 꿈을 꾸기도 했던 것 같다. 꿈이 직업과 연관이 있었던 나의 어린 시절 꿈에 비하면 우리 반 학생들의 꿈은 너무나 야무지고 개성이 넘치는 것들이어서 그들의 미래가 빛나 보인다.

영현이와 건영이는 자신들의 글솜씨를 살려서 아동 작가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 특히 건영이는



2016년 열린 ‘한복 패션쇼’ 모습

한국어로도 작품을 쓸 계획이라고 해서 감동적이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한 것들을 그림으로 그리는 일이 재미있을 것”이라는 민제는 디즈니에서 만화영화를 그리는 작가가 되고 싶어 한다.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성격 좋은 지윤이, 베네딕은 듬직한 체구에 걸맞게 미식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 하고, 선영이는 하키 선수가 되고 싶어 한다. 우주 과학자가 꿈인 민섭이와 의사가 꿈인 건희는 자신의 꿈을 이야기할 때 더욱 눈이 반짝이다. 그리고 한국의 여배우가 되고 싶어서 열심히 한글을 익히고 있는 미국인 학생 제시까지... 모두들 미래에 대한 생각이 매우 구체적이고 계획적이다. 이러한 꿈나무들의 꿈이 꼭 이루어지면 좋겠다.

다음 주에는 예쁜 종이를 가지고 가서 학생들의 사인을 받아 둘 생각이다. 미래의 유명한 배우, 노벨문학상을 받을 작가, 운동선수들의 친필 사인을...

이런 꿈나무들을 대할 수 있는 나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신라 금관, 첨성대 등 우리 문화유산 모형 만들기 활동



한국어와 한국문화 지식을 뽐내는 '박스 골든벨'(2018년) 현장

세계태권도연맹 요르단 난민 캠프 내 '아즈락 태권도 아카데미' 개관식 개최

세계태권도연맹(World Taekwondo, 이하 WT, 총재 조정원)은 현지시각 4월 1일 오후 3시 요르단의 아즈락(Azraq) 난민 캠프에서 태권도 교육 전용 '아즈락 태권도 아카데미(Azraq Taekwondo Academy)' 건물 개관식을 열었다.

아즈락 난민 캠프는 요르단과 시리아 국경에서 90km에 위치한 난민 수용소로 시리아 내전을 피해 도망친 시리아 난민들을 위한 시설이다.

WT와 태권도박애재단(Taekwondo Humanitarian

Foundation, 이하 THF)는 2016년 4월부터 캠프 내 임시 공동 건물에서 30여명의 난민 청소년들에게 태권도 수업을 시작했으며 현재 80여명의 청소년들이 태권도를 수련하고 있다.

지난 11월에는 당시 나이 15세인 시리아 난민 청소년 와엘 파와즈 알 파라즈(Wael Fawaz Al-Farraj)가 태권도 검은띠를 취득하는 경사를 맞기도 했다.

WT는 보다 안정적이고 깨끗한 환경에서 더 많



아즈락 태권도아카데미 개관 MOU 협약서에 서명하는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 겸 IKC 총재(왼쪽)

은 난민 청소년들에게 태권도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작년 12월부터 건물 공사를 시작해 태권도 전용 건물을 완공했다. ‘아즈락 태권도 아카데미’는 단층 건물로 전용 도장과 교실, 탈의실, 진료실 및 카페테리아 등 편의시설도 갖춰져 있다.

개관식에 참석한 WT 조정원 총재는 인사말에서 “지난 2년간 태권도 아카데미 수업은 큰 성공을 거뒀으며, 지난해 11월에는 캠프 최초의 검은띠 소지자도 배출되었다”며 “이제 새로운 태권도 전용 건물에서 더 많은 청소년들이 삶의 의지와 희망을 찾고 세계 시민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일조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이날 개관식에는 요르단 왕자이자 요르단 태권도협회장인 라쉬드 빈 엘 하산(HRH Prince Rashid bin El Hassan)과 요르단의 유엔난민기구(UNHCR) 임원 등이 참석했다.

WT는 인류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기여에 동참하기 위해, 2016년 THF를 설립해 태권도를

통한 전 세계 난민캠프 및 자연재해 지역 어린이 지원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2015년 말부터 요르단의 시리아 난민 캠프인 자타리(Zaatari)와 아즈락(Azraq), 터키의 시리아 난민 캠프, 그리고 지진 피해를 입은 네팔에서 봉사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요르단 아즈락 난민 캠프와 르완다에는 현지 태권도 사범을 파견해 난민 어린이들에게 태권도와 올림픽 정신을 전파하고 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세계태권도연맹은 2016년 말 ‘피스 앤 스포츠(Peace and Sport)’로부터 전 세계적으로 평화와 봉사에 노력한 단체에게 주는 최고 권위의 상인 ‘올해의 경기단체’로 선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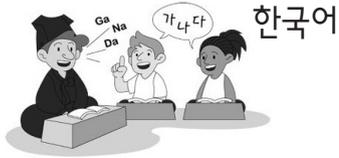
또한, 조정원 총재는 IOC에서 2017년 출범한 ‘올림픽난민재단(Olympic Refugee Foundation)’의 이사로 선임되어 온갖 역경을 견디며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난민 청소년들과 이주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아즈락 태권도 아카데미 현장을 둘러 보며 담소 중인 요르단 태권도협회장 라쉬드 왕자(왼쪽)와 조정원 총재(오른쪽)



조정원 총재의 아즈락 태권도 아카데미 개관식 인사말 모습



북유럽 첫 세종학당 핀란드서 문 연다 ... 12개국 15곳 추가지정

세종학당재단은 북유럽 국가 중 최초로 핀란드에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전하는 세종학당이 문을 연다고 5일 밝혔다. 핀란드 옛 수도인 투르쿠에 소재한 투르쿠대학에 들어서는 세종학당은 오는 7월부터 대학생을 비롯해 현지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강좌를 열고 한국문화도 전하는 보급기지 역할을 하게 된다.

재단 관계자는 “투르쿠는 핀란드 역사·문화 중심지로 외국어를 모국어로 쓰는 인구가 10%를 넘어서는 다문화 도시”라며 “핀란드 청소년들 사이에 한류 열풍도 거센데다 중국·일본에 이어 3번째 교역국인 한국을 알리는 분위기가 조성돼 학당이 문을 열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한류팬 등을 대상으로 한 취미반, 한국 관련 기업 취업 희망자를 위한 학습반, 국제결혼 배우자와 자녀를 대상으로 한 다문화 반 등 다양하게 구분해 한국어를 가르칠 것”이라고 소개했다.

재단은 이 밖에도 아제르바이잔, 브라질, 스리랑카 등 12개국에서 15곳을 추가로 지정했다. 이로써 세종학당은 전 세계 57개국에 174개로 늘어났다.

[출처] (서울=연합뉴스) 강성철 기자, 2018/06/05





‘국기(國技) 태권도’ 법률로 지정 ... 태권도법 개정안 국회 통과

태권도가 법률로 우리나라 국기(國技)로 지정됐다. 2일 국회와 태권도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국기는 태권도로 한다’는 내용이 담긴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태권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30일 열린 국회 제358회 제1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법안은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을 대표로 여·야 국회의원 225명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이동섭 의원은 태권도 9단으로 지난해 발족한 국회의원태권도연맹의 초대 총재를 맡고 있다. 이 의원은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에 앞서 중국의 ‘태권도 동북공정’에 대응하고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유지하기 위해 태권도의 국기 지정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태권도는 그동안 관습적으로 우리나라 국기로 인식됐지만 법률로 지정되지 않아 법적인 지위는 인정받지 못했다. 이번에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태권도는 국가 차원의 더욱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출처] (서울=연합뉴스) 배진남 기자, 2018/04/02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활동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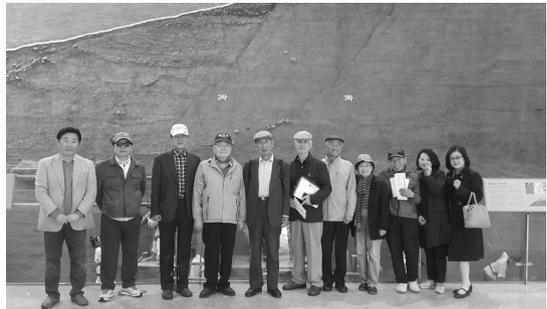
■ 총회 및 창립 7주년 기념 포럼 성황리에 마쳐

지난 3월 30일(금),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본회 총회 및 창립 7주년 기념 포럼이 약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치러졌다. 2017년 사업보고와 회계연도 결산 및 2018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안 승인에 이어, ICKC 재외동포학생 장학증서 시상식을 가졌다. 이어진 포럼에서는 ‘한국문화유산의 가치와 그 미래’라는 주제 하에 고운기 한양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가 ‘공존: 한국 문화유산이 지닌 가치’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우리가 미처 몰랐던 한글, 무속 등 한국 문화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었던 뜻 깊은 시간이었다.



■ 2018년 첫 문화탐방 - 풍납토성, 몽촌토성, 한성백제박물관

지난 4월 24일(목), 2018년 ICKC의 첫 문화탐방으로 풍납토성, 몽촌토성 및 한성백제박물관을 탐방하였다. 본 탐방 코스는 “서울도보관광” 코스의 하나로, 풍납토성과 몽촌토성을 중심으로 도심 속의 휴식공간 올림픽공원을 돌아보며, 삼국시대 역사의 숨결과 88서울올림픽의 감동을 아울러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아울러 한성백제박물관을 방문해 삼국 시대 한강을 둘러싸고 펼쳐진 선조들의 역사적, 문화적인 활동들을 실감할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다.



2018년 후원하여 주신 분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활동을 위해 보내주시는 관심과 후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이 헛되지 않도록 소중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강석재, 강영광, 강영실, 강재근, 구병진, 김건길, 김명수, 김복음, 김소진, 김영규, 김영호, 김용구, 김용준, 김정부, 김정일, 김정택, 김종근, 김진원, 김홍석, 류성식, 문영호, 박관용, 박미화, 박원출, 박익근, 배대환, 성효동, 유영찬, 유자효, 윤윤식, 이대근, 이병욱, 이상철, 이석중, 이성호, 이영섭, 이용선, 이향구, 장정용, 장호익, 전영섭, 정상설, 정영숙, 정진화, 정현관, 조두연, 조춘연, 조평규, 추호석, 최춘이, 표재순, 홍경자, 홍계화, 황경애, (주)세협엔터프라이즈, 수풍산업(주), (주)신동, (제)아시아발전재단, (주)포스젯한도, (주)P&H (가나다순, 2018년 1월 1일 ~ 2018년 5월 31일까지)

총액 : 14,620,000원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International Center for Korean Culture(ICKC)

2011.03.30. 창립총회 개최
2011.08.16.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사단법인 인가
2012.10.02. 지정 기부금 단체 지정(기획재정부공고 제2012-166호)
2018.03.30. 총회 및 창립 7주년 포럼 개최

조직 구성 고 문 강성구 前 MBC 사장
김길남 국제한민족연구재단 대표
김용구 (주)산동 회장
박갑수 前 ICKC이사장,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박관용 前 국회의장, NDI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이사장
최불암 예술인

총 재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이 사장 조남철 前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 방송대 명예교수

부 회 장 김성진 前 한경대학교 총장
김재현 前 한국화학연구원 원장, 공주대학교 교수

운영위원 강석재 세계태권도연맹 전문위원
김옥량 꼭두박달관 관장
박의근 재정위원장, (주)P&H 회장
서 혁 연구위원장,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송종국 경희대학교 교수
이동민 한국IMS 대표
이종택 선진회계법인 대표
이형모 재외동포신문 대표

감 사 전영섭 변호사
박원출 前 한국조폐공사 사장

ICKC
홈페이지
및
회원가입
안내

ICKC는 회원 여러분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위하여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ickc-seoul.net>입니다. 위 홈페이지에서 단체의 공지사항 및 최근 활동 현황, 한국어·태권도 관련 주요 뉴스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발행된 모든 소식지 역시 '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그리고 ICKC 회원 가입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있는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 하셔서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 주시거나 ICKC 사무국으로 연락 주십시오(연락처는 본 소식지 1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친절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후원금 보내 주실 곳

신한은행 100-027-567461 국민은행 068801-04-248856 예금주 :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 본회는 기획재정부가 승인한 지정기부금 단체입니다(기획재정부 공고 제2012-166호). 여러분이 내신 후원금은 「소득세법」 제34조, 「조세특례 제한법」 제76조·제88조의4 및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개인의 경우 소득의 30% 한도 내에서 기부금액의 15%(2000만원 이상 30%)를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으며, 법인의 경우 소득의 10% 한도 내에서 전액 손비산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HOT SUMMER HOT SUMMER HOT

COOL FESTIVAL COOL FESTIVAL

2018



홍천
마리소리
여름축전

2018. 8. 18(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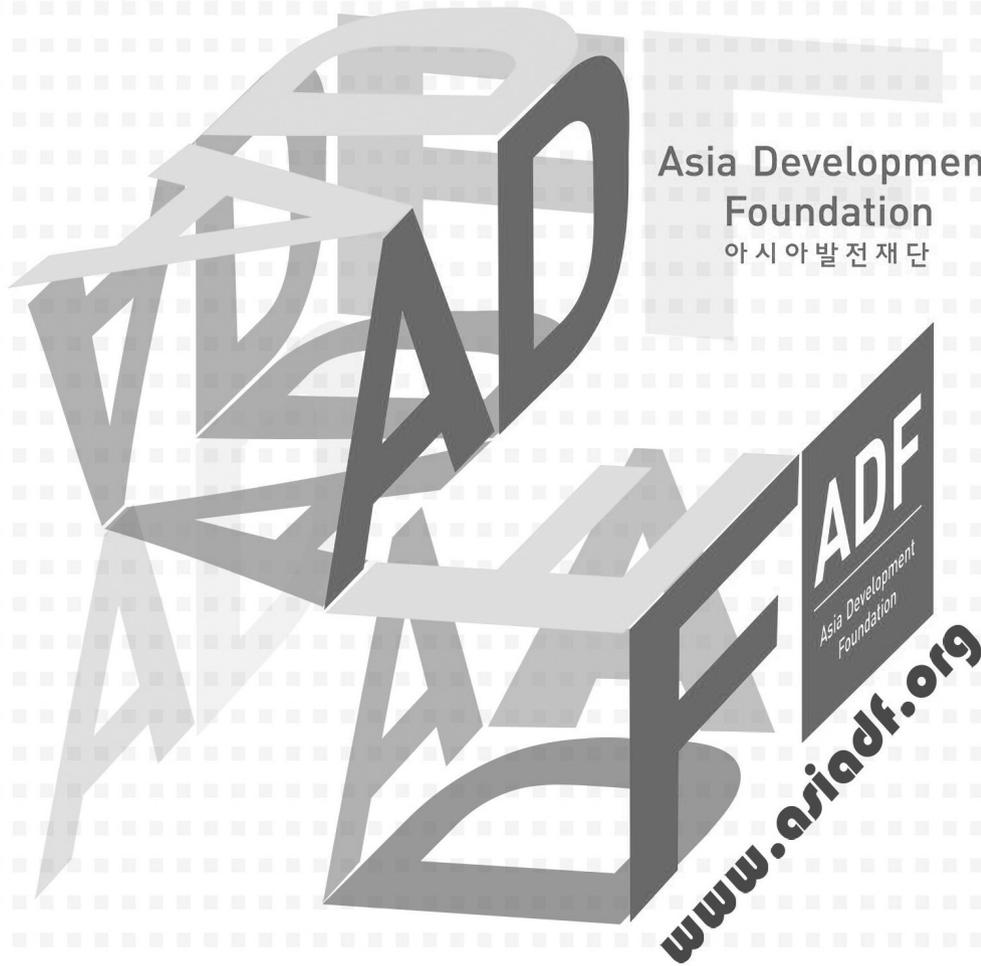
마리소리골악기박물관 일대

주최 : 홍천군

주관 : (사)마리소리음악연구원

후원 : 어울사랑 / 어울사랑예술단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Asia Development
Foundation
아시아발전재단

나눔으로 더해가는
밝은 미래
함께 열어갑니다.